

 교육부				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10. 31.(목) 배포</p>	
보도일	2019. 11. 1.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0. 31.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교육기회보장과	담당자	과 장	박지영 (☎ 044-203-6746)	
			사무관	지다슬 (☎ 044-203-6987)	

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, 세계의 인재로 자란다

- ◆ 다문화학생 대상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
- ◆ 전국 50명의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와 부모나라 언어 실력 선보여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엘지(LG)연암문화재단(이사장 이문호)은 11월 2일(토) 엘지(LG)사이언스파크에서 ‘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’를 개최한다.
 - ‘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’는 다문화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.

-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예선을 거친 50명(초·중등 각 25명)의 다문화학생들이 참가하여 나의 꿈,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우리말과 자신의 부모나라 언어^①로 발표한다.
 - 특히, 학급 친구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쳐주자 자신에게 몽골어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에게 느낀 고마움과 보람을 이야기할 민진(전주금평초 6학년) 학생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.
 - 또한, 이번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관계형성을 위해 친구와 함께 짝을 지어 이중언어로 발표하는 특별무대^②도 준비되어 있다.

- ① 참가언어: 중국어, 몽골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베트남어, 캄보디아어, 네팔어, 아랍어, 인도네시아어, 타갈로그어, 우즈베크어, 독일어, 스페인어
- ② 특별무대: 초등(양지혜·김체린) '소문난 칠공주/ 중등(김대한·류소을) '10년 뒤 우리는'

□ 참가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상 또는 특별상(LG연암 문화재단이사장상,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)을 수여하며, '엘지(LG)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^③'에서 이중언어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.

- ③ 엘지(LG)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: 2년 동안 진행되는 언어과정으로 1:1 화상 멘토링, 글로벌 리더십 캠프,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제공

○ 시상식에 참석한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“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진 여러분들이 소질과 적성을 살려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세부 내용
 2.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 원고(발체)



□ **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추진계획**

- (목적)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여 이중언어 인재를 조기에 발굴·육성하고,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 지원
- (일시/장소) '19.11.2.(토) 9:00~17:00/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
- (주최) 교육부, LG연암문화재단
- (주관) 충청남도교육청, 중앙다문화교육센터, 한국외국어대학교
- (참가대상) 시·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초·중·고 다문화학생 50명
- (참석자)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, 남상건 LG연암문화재단 총괄 대표, 신익현 충청남도 부교육감,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, 지도교사, 다문화학생 가족·친구 등 200명
- (운영) 제시된 주제(초등부 자유 주제, 중등부 나의 진로 계획)에 따라 한국어 및 부모 모국어로 원고를 작성하여 언어별 각 2~3분간 발표
 - ※ 질의응답(중등부): 학생별 추천서와 발표원고 내용 중에서 2문항 질문 (1문항은 한국어로, 1문항은 부모 모국어로 질문하고 답변)
- (참가언어) 초등* 부문 8개 언어, 중등** 부문 10개 언어(한국어 제외)
 - * 중국어(11), 몽골어·일본어(각4), 러시아어(2), 네팔어·인도네시아어·베트남어·캄보디아어(각1)
 - ** 중국어(8), 러시아어·베트남어(각4), 일본어(3), 독일어·몽골어·스페인어·이탈리아어·우즈베크어·타길로그어(각1)
- (시상계획) 50명(초등부 25명, 중등부 25명)

구분	초등부	중등부	훈격	부상(만원)	
				학생	지도교사
대상	1	1	교육부장관상	50	상품
금상	2	2		40	
은상	4	4		30	
동상	6	6		20	
특별상	6	6	LG연암문화재단이사장상	20	
특별상	6	6	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	20	
특별부문	1팀(2명)	1팀(2명)	시상 없음	10	
합계	25(2)	25(2)		1,260	

□ 행사 프로그램

- (본선대회) 초등부 및 중등부 대회 진행 ※ 오전 A조, 오후 B조

< 세부일정(안) >

시간	내용	
09:00~09:30	접수	접수
09:30~10:00	준비	A조 대회 준비 및 학생 이동
10:00~12:00	본선(1부)	본선 대회 <A조> 초등부(컨버전스홀), 중등부(비전홀)
12:00~13:00	식사	중식 및 B조 대회 준비
13:00~15:00	본선(2부)	본선 대회 <B조> 초등부(컨버전스홀), 중등부(비전홀)
15:00~15:20	휴식	심사 집계 및 시상 준비
15:20~15:25	시상식	개회
15:25~15:30		개회사(남상건 LG연암문화재단 총괄 대표) 환영사(서유미 교육부 차관보)
15:30~15:40		특별부문 발표
15:40~15:50		축하 공연
15:50~16:20		시상식 및 사진 촬영
16:20~	폐회	

- (체험코너) 참가자 및 학부모 대상 대기시간 활용 체험 프로그램 마련
 - LG사이언스파크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, OLED 갤러리, 다문화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

초등 부문 참가자 발표 내용(발췌)

- 비록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시는 아빠!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. “아빠, 늦었지만 그 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. 그리고 아빠, 정말 정말 사랑해요.” - 이지형 학생
-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, 다른 학교에서의 생활이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보석과 같은 추억입니다. 특히 아직도 중국에 계시는 아빠께서 선물해준 중국어, 엄마의 나라가 키워준 한국어. 이 두 가지 언어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석입니다. - 박하음 학생
-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. 1학기 때 매주 수요일 ‘몽골리안 타임’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저는 교실 앞으로 나가 친구들에게 몽골어 표현을 알려주었습니다. 가끔 친구들이 몽골어로 저에게 인사할 때는 보람이 느껴집니다. 저에게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- 민진 학생

중등 부문 참가자 발표 내용(발췌)

- 제 장래 희망은 6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. 아픈 사람들을 위해, 봉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, 의사를 선택했습니다. 우리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준 대한민국에게 보답하기 위해,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- 우민전 학생
- 제가 11살이 되던 해, 저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중국인 어머니가 생긴 것입니다.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서툴렀지만,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- 인다현 학생
- 저는 어머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실력 있고 유명한 미술 Academy를 세우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한국의 예술대학에 진학할 것이며,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러시아의 Rostov Art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유학하고 싶습니다. - 심나윤 학생

특별무대(중등) 발표 내용(발췌)

- 소울** : 나는 이번 말하기대회를 계기로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, 러시아어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. 대한아~ 넌 꿈이 뭐야?
- 대한** : 난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이야. 마술사가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, 한국과 러시아 두 곳에서 공연을 꼭 해보고 싶어.
- 소울** : 대한이는 멋진 마술사가 될 수 있을 거야. 한국어와 러시아어 모두 잘하니까, 두 나라에서 공연도 가능할 거고.
- 대한** : 지팡이가 비둘기로 변하기도 하고, 손수건에서 돈이 마구 떨어지는 마술도 해보고 싶어.
- 소울** : 우와~ 무대에서 마술을 선보일 너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.